

<p>보도자료</p>	<p>보도일시</p>	<p>2016. 12. 19.(월) 12:00</p>	 <p>통계청</p>
	<p>배포일시</p>	<p>2016. 12. 19.(월) 09:00</p>	
	<p>담당부서</p>	<p>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p>	
	<p>담당자</p>	<p>과 장 : 이 재 원(042-481-3720) 서 기 관 : 정 남 수(042-481-3735)</p>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 · 가구 · 주택 기본특성항목



통계청이 작성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의 20% 표본 가구에 대해서 조사원 면접 및 인터넷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 표본 집계 결과는 전수 결과를 모수로 추정한 것으로 일부 자료에서 전수 집계 결과와 표본 집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록된 천단위 자료는 백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은 원 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천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임

2. 총조사 인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인구로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표본항목(인구·가구·주택부문) 결과 공표

- 보도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
 - 표본 집계결과 : 2016. 12월 ~ 2017. 4월
 - * 여성·아동, 출산력, 주거실태('17. 2월)
 - * 인구이동, 통근통학('17. 4월) 등 부문별 순차적 공표 예정
- 통계표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 순차적으로 수록
- 보고서·CD : 2017년 하반기 중 제작 배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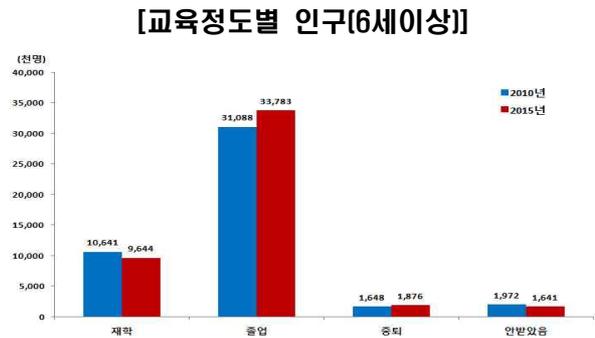
목 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요약)	1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7
I. 인구부문	7
1. 교육정도별 인구	7
2. 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인구)	10
3. 종교	15
4. 사회활동별 인구(20세이상 인구)	19
5. 고령자 생활비원천별 인구	24
II. 가구 및 주택부문	29
1. 사용방수별 가구	29
2. 방 1개 사용 가구	30
3. 점유형태별 가구	32
4. 총방수별 주택	37
5. 1인가구의 혼인상태 주거현황	39
□ 통계표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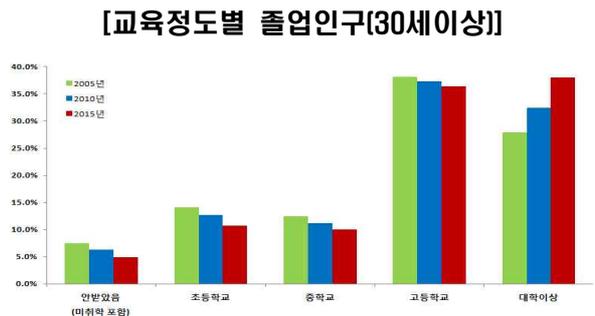
2010년 대비, 정규학교 졸업인구는 2,695천명(3.4%p) 증가
 재학인구는 997천명(3.0%p) 감소, 중퇴인구는 228천명(0.4%p) 증가

- 2015.11. 1일 기준 정규학교 졸업인구는 2010년(31,088천명)보다 2,695천명 증가
 - 재학인구는 9,644천명으로 2010년(10,641천명)보다 997천명(3.0%p) 감소
 - 중퇴인구는 1,876천명으로 2010년(1,648천명)보다 228천명(0.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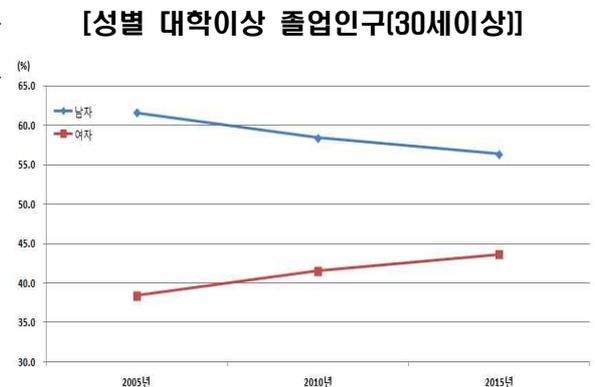
대학이상 졸업인구 구성비가 2010년 32.4%에서 38.0%로 5.6%p 증가

- 30세이상에서 대학이상 졸업인구는 2010년 32.4%에서 2015년 38.0%으로 5.6%p 증가
- 2010년 대비 고등학교 졸업이하 인구 구성비는 감소하고 대학졸업 이상 인구 구성비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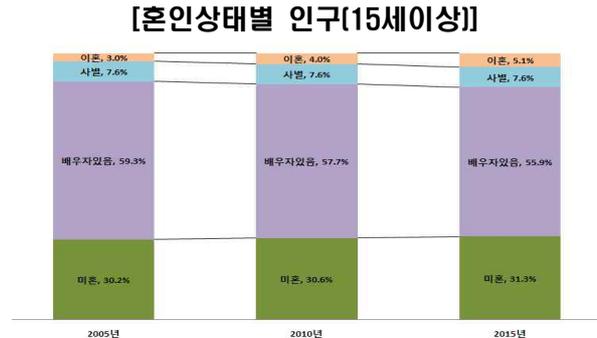
대학이상 졸업인구(30세이상) 구성비의 남녀차이가 2010년 16.8%p에서 2015년 12.7%p로 줄어들음

- 30세이상 대졸인구의 남녀별 구성비 차이는 2010년 16.8%p에서 2015년 12.7%p로 줄어들음
 - 특히, 30대는 2005년 10.9%p, 2010년 4.4%p, 2015년 1.1%p로 줄어들음
- 30세이상의 평균교육연수는 2010년 11.4년에서 2015년 12.0년으로 증가
 - * 10.2년('00) → 11.0년('05) → 11.4년('10) → 12.0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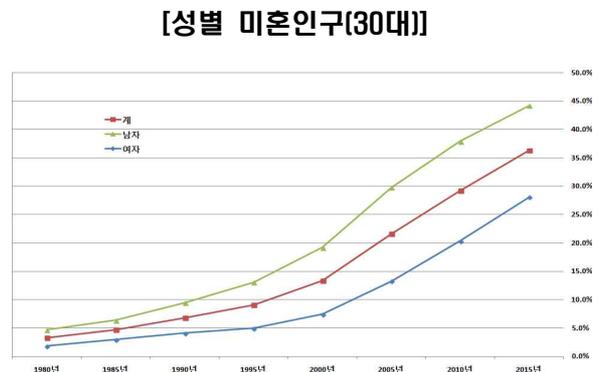
2010년에 비하여 미혼과 이혼인구 구성비는 0.7%p, 1.1%p 증가, 배우자있음은 1.8%p 감소

-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는 배우자있음(55.9%), 미혼(31.3%), 사별(7.6%), 이혼(5.1%) 임
- 2010년에 비하여 미혼과 이혼은 0.7%p, 1.1%p 증가하고 배우자있음은 1.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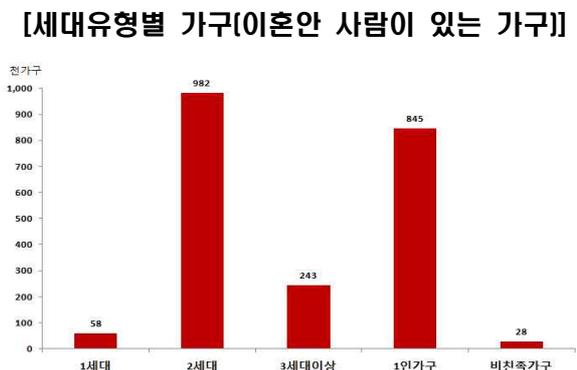
모든 연령에서 미혼인구비율 증가, 특히 30대 증가율(7.1%p)이 가장 높음

- 미혼인구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 특히, 30대가 2010년 29.2%에서 2015년 36.3%로 7.1%p 증가로 가장 높음
 - 남자는 40대(7.3%p), 여자는 30대(7.7%p)가 가장 많이 증가
- 연도별 미혼인구비율(30대)
 - 13.4%('00)→21.6%('05)→29.2%('10)→36.3%('15)



이혼인구의 세대유형은 2세대(45.5%), 1인가구(39.2%) 순이고, 점유형태는 월세가 39.6%로 가장 많음

- 이혼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세대유형은 2세대가 4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39.2% 순임
 - * 전체가구 : 2세대(48.1%), 1인가구(27.3%)
- 점유형태는 월세가 3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집 39.3% 순임
 - * 전체가구 : 자기집(56.8%), 월세(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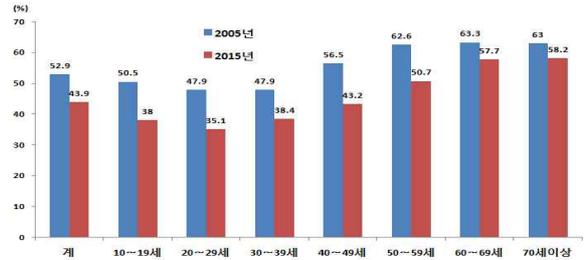


종교가 있는 인구는 2005년 52.9%에서 43.9%로 감소하고,
종교가 없는 인구는 47.1%에서 56.1%로 증가

- 2015년 종교 있는 인구는 21,554천명(43.9%)이며, 2005년 24,526천명(52.9%)보다 2,972명(9.0%p) 감소

- 연령별로는 40대(13.3%p), 20대(12.8%p)
10대(12.5%p) 감소

[연령별 종교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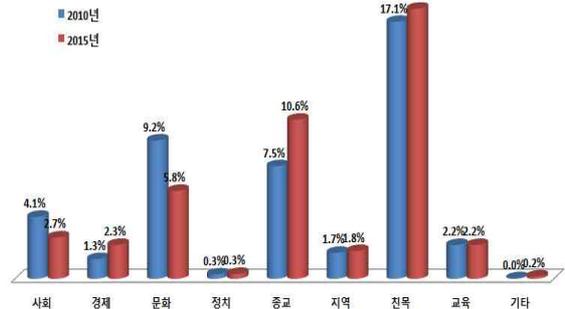
사회활동 참여인구 비율이 2010년 33.7%에서 2015년 31.1%로 2.6%p 감소
분야별로는 종교단체는 감소(3.1%p)하고 문화단체는(3.3%p) 증가

- 20세 이상의 사회활동 참여인구는 12,228천명 (31.1%)으로 2010년 12,245천명(33.7%) 비하여 2.6%p 감소

- 분야별로는 친목단체(17.1%)가 가장 높고,
문화단체(9.2%), 종교단체(7.5%) 순임

- 남자는 32.9%, 여자는 29.3%가 사회활동에 참여함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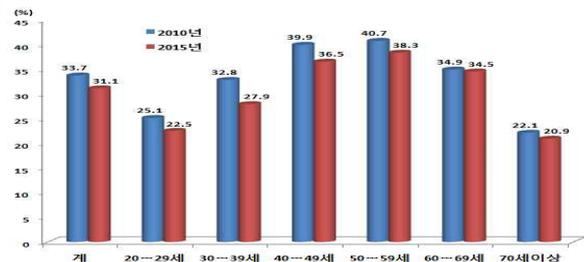


사회활동 참여율은 50대(38.3%)가 가장 높고, 30대는 가장 많이(4.9%p) 감소

- 연령별로는 50대가 38.3%로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40대 36.5%, 60대 34.5% 등의 순임

- 고학력일수록 사회활동참여율이 높아 대학원졸업 49.7%, 대학교졸업 37.2%, 대학 졸업 33.0% 등의 순임

[연령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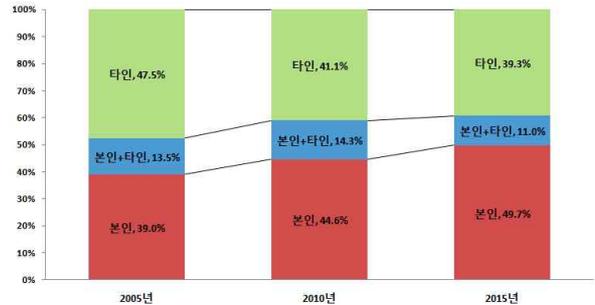


60세이상 인구 중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2010년 44.6%에서 2015년 49.7%로 5.1%p 증가

○ 60세이상 인구 중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49.7%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39.3%임

- 남자는 62.7%이나 여자는 39.6%에 불과
* 본인스스로마련=[본인·배우자의일,직업]+[예금,적금]+[공적연금]+[개인연금]+[부동산]+[주식,펀드,채권등]

[생활비 자금도별 고령자(60세이상)]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는 주로 20대(35.2%), 혼인상태 미혼(67.2%), 점유형태 월세(71.5%)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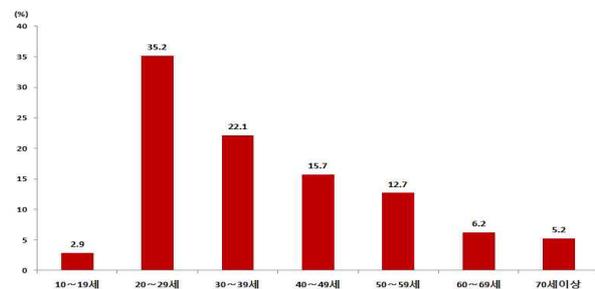
○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를 보면, 20대(35.2%)가 가장 많고, 30대(22.1%), 40대(15.7%) 등의 순임

* 전체가구 : 50대(24.0%), 40대(23.1%), 30대(16.1%)

○ 혼인상태는 미혼인 67.2%로 가장 많고, 배우자있음 15.0%, 이혼 11.9%, 사별 5.9% 등임

* 전체가구 : 배우자있음(63.4%), 미혼(15.3%), 사별(12.4%), 이혼(9.0%)

[가구주 연령별 가구(방1개에 거주하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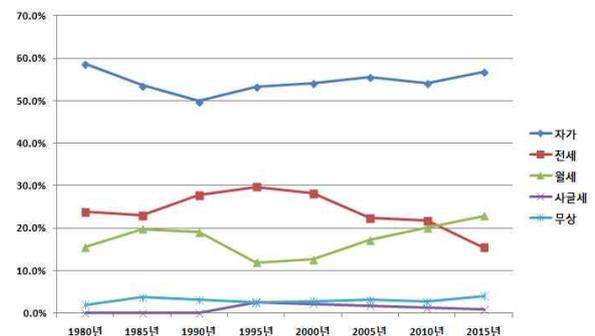


전세 거주비율은 감소(-6.2%p), 자기집(2.6%p)과 월세가구(2.8%p)는 증가, 월세가구 비율(22.9%)이 전세가구 비율(15.5%)보다 많음

○ 2015년 점유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56.8%로 가장 높고, 월세 22.9%, 전세 15.5%, 사글세 0.8%, 무상 4.0%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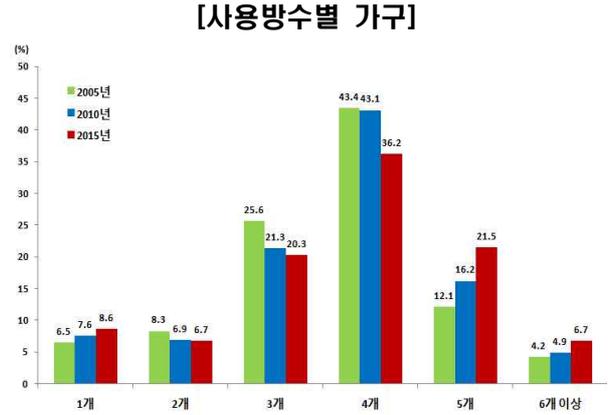
○ 2010년에 비해, 자기집과 월세는 2.6%p, 2.8%p 증가하고 전세는 6.2%p 감소

[점유형태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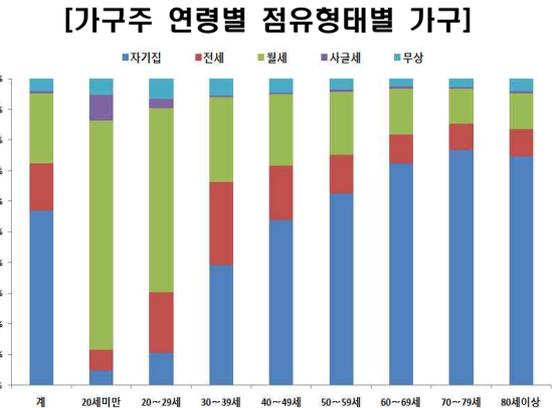
가구당 평균사용방수가 2010년 3.7개에서 2015년 3.8개 증가하고, 1인가구의 증가로 사용방수 1개인 가구 비율이 증가

- 2015년 일반가구에서 사용방수가 4개인 가구(36.2%)가 가장 많고, 5개(21.5%), 3개(20.3%) 등의 순임
- 가구당 평균사용방수는 3.8개로 2010년 3.7개에서 0.1개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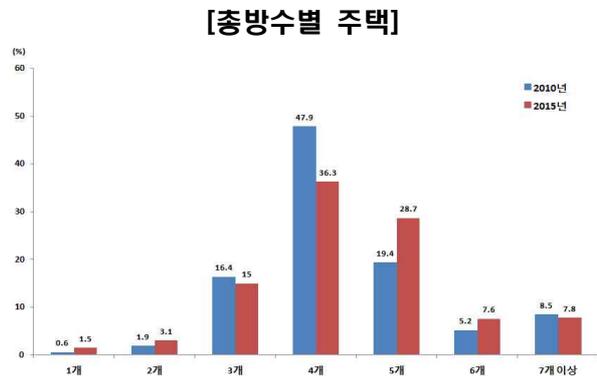
30대와 40대에서 자기집의 비율이 각각 2.4%p와 1.5%p 상승

- 가구주의 연령별 점유형태를 보면, 20대 이하는 월세, 30대이상은 자기집의 비율이 가장 높음
- 2010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전세비율은 감소하고 월세비율 증가
- 30대는 36.8%에서 39.2%로 2.4%p증가했고, 40대는 52.3%에서 53.8%로 1.5%p증가



방이 4개인 주택은 감소(11.6%p)하고, 5개인 주택은 증가(9.3%p)

- 2015년 주택에서 총방수가 4개인 주택이 36.3%로 가장 많고, 5개 28.7%, 3개 15.0% 순임
- 2010년과 비교해서, 총방수가 3개와 4개인 주택인 1.4%p, 11.6%p 감소, 5개와 6개는 9.3%p, 2.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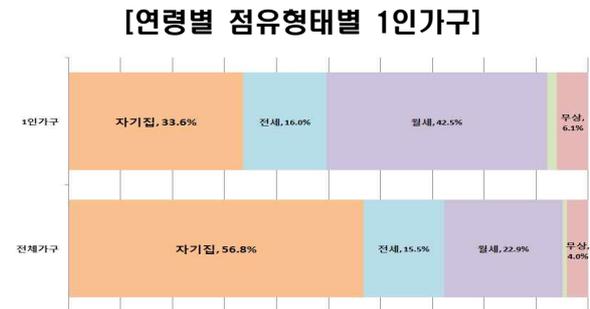
1인가구 증가 1,061천가구 중 미혼 1인가구가 443천명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

-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2,286천명 (43.9%)로 가장 많고, 사별 1,451천명 (27.9%), 이혼 845천명(16.2%), 배우자 있음이 621천명(11.9%)임
- 2010년 대비 1인가구 증가 1,061천가구 중 미혼이 443천명(24.0%)으로 가장 많이 증가



1인가구 중 월세가 2,213천가구(42.5%)로 가장 많고 1인가구 증가분 1,061천가구 중 월세가 54.4%를 차지

- 1인가구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2,213천가구(42.5%)로 가장 많고, 자기집 1,750천가구(33.6%), 전세 831천가구 (16.0%) 순임
- 2010년에 비해 월세는 577천가구 증가하여 전체 증가(1,061천가구)의 54.4%를 차지함



1인 가구는 단독주택(2,716천가구, 52.2%)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증가율은 다세대주택(98.5%)이 가장 높음

- 1인가구의 거주종류는 단독주택 52.2%, 아파트 28.4%, 다세대주택 9.0%등임
- 2010년과 비교해서, 다세대주택의 증가율이 9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이외의 거처가 60.7%임



I. 인구부문

1. 교육정도별 인구

가. 교육정도별 인구현황

2010년 대비, 졸업인구는 2,695천명(3.4%p) 증가하였고, 재학인구는 997천명(3.0%p) 감소, 중퇴인구는 228천명(0.4%p) 증가하였음

- 2015년 11월 1일 기준의 우리나라 인구 중, 정규학교의 졸업인구는 33,783천명으로 2010년 31,088천명보다 2,695천명(3.4%p) 증가하였음
- 재학인구는 9,644천명으로 2010년 10,641천명보다 997천명(3.0%p) 감소
 - 재학인구 중에서는 초등학교가 2,729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등학교 2,127천명, 대학교(4년제) 2,092천명 순임
- 중퇴인구는 1,876천명으로 2010년 1,648천명에서 228천명(0.4%p) 증가하였음
 - 중퇴인구 증가 228천명 중에서 대학교(2~3년제 포함) 중퇴자가 204천명(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표 1 > 교육정도별 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교육정도	계	재학	졸업	중퇴	받지 않았음		
					미취학	무학	
2010년	45,349 (100.0)	10,641 (23.5)	31,088 (68.6)	1,648 (3.6)	1,972 (4.3)	377 (0.8)	1,595 (3.5)
2015년	46,944 (100.0)	9,644 (20.5)	33,783 (72.0)	1,876 (4.0)	1,641 (3.5)	359 (0.8)	1,282 (2.7)
초등학교	6,383 (100.0)	2,729 (42.8)	3,304 (51.8)	351 (5.5)			
중학교	5,039 (100.0)	1,704 (33.8)	3,094 (61.4)	240 (4.8)			
고등학교	14,717 (100.0)	2,127 (14.5)	12,281 (83.4)	309 (2.1)			
대학교 (2,3년제)	5,789 (100.0)	718 (12.4)	4,658 (80.5)	414 (7.2)			
대학교 (4년제이상)	11,348 (100.0)	2,092 (18.4)	8,746 (77.1)	510 (4.5)			
대학원	2,026 (100.0)	275 (13.6)	1,698 (83.8)	51 (2.5)			

주) 졸업에 수료 포함, 재학에 휴학 포함

나. 졸업인구(30세이상)

대학이상 졸업인구 구성비가 2010년 32.4%에서 38.0%로 5.6%p 증가

- 30세이상 인구에서 대학이상 졸업인구가 12,601천명(38.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12,069천명(36.4%), 초등학교 졸업 3,534천명(10.7%)이고, 중학교 졸업 3,320천명(10.0%) 순임
 - 2010년에는 고등학교 졸업구성비가 37.3%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는 대학이상 졸업인구가 12,601천명(38.0%)로 가장 많음
- 2010년 대비 고등학교 졸업이하 인구구성비는 감소하고 대학 졸업이상 인구구성비는 증가하였음
 - 대학이상 졸업인구 구성비는 2010년 32.4%에서 38.0%로 5.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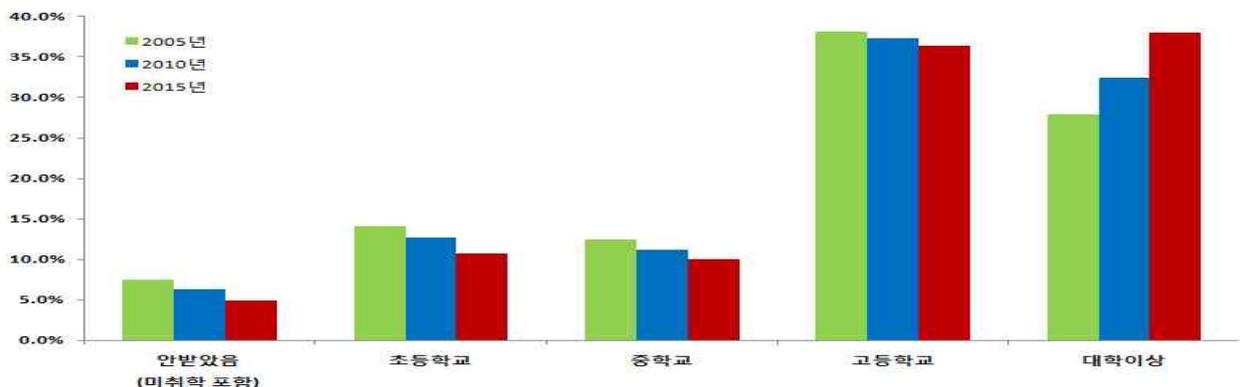
< 표 2 > 교육정도별 졸업인구(30세이상) (2010, 2015)

(단위: 천명, %, %p)

졸업구분	인구			구성비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계	30,171	33,146	2,975	100.0	100.0	0.0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1,915	1,622	-293	6.3	4.9	-1.5
초등학교 졸업	3,834	3,534	-299	12.7	10.7	-2.0
중학교 졸업	3,384	3,320	-63	11.2	10.0	-1.2
고등학교 졸업	11,254	12,069	815	37.3	36.4	-0.9
대학이상	9,785	12,601	2,816	32.4	38.0	5.6
- 대학교(2,3년제) 졸업	2,950	3,650	699	9.8	11.0	1.2
- 대학교(4년제이상) 졸업	5,613	7,287	1,674	18.6	22.0	3.4
- 대학원 졸업	1,222	1,664	442	4.0	5.0	1.0

주) 졸업에 수료 포함, 재학에 휴학 포함

< 그림 1 > 교육정도별 졸업인구(30세이상) (2005~2015)



다. 성별 대학이상 졸업인구(30세 이상)

대학이상 졸업인구(30세 이상) 구성비의 남녀차이가 2010년 16.8%p에서 2015년 12.7%p로 줄어듦

○ 30세 이상 대졸인구의 남녀별 구성비 차이는 2010년 16.8%p에서 2015년 12.7%p로 줄어듦

- 특히, 30대에서는 2005년 10.9%p에서 2010년 4.4%p로 줄어들고 2015년에는 1.1%p로 남녀 대졸인구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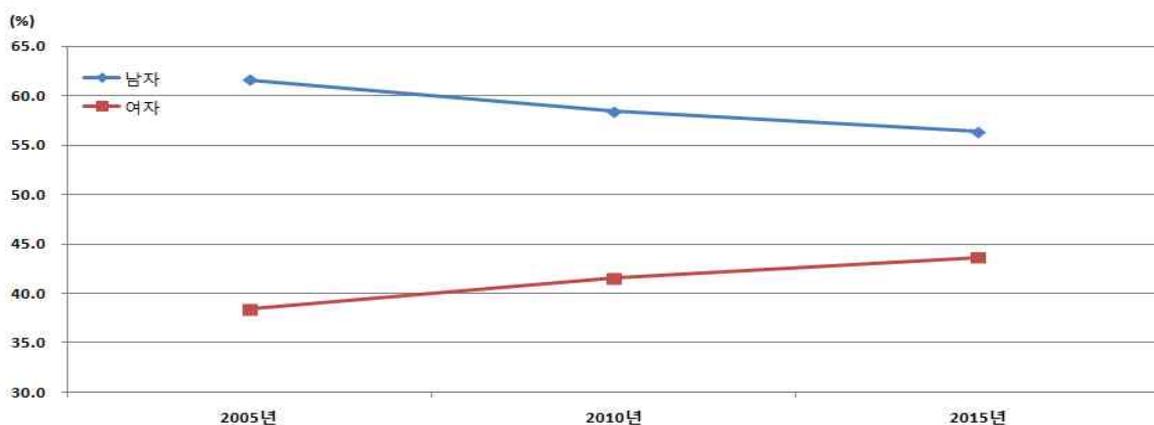
< 표 3 > 성별 대학이상 졸업인구(30세 이상) (2005~2015)

(단위: %, %p)

연령	2005년		2010년		2015년		구성비차이		
	남	여	남	여	남	여	2005년	2010년	2015년
계	61.6	38.4	58.4	41.6	56.3	43.7	23.2	16.8	12.7
30~39세	55.5	44.5	52.2	47.8	50.6	49.4	10.9	4.4	1.1
40~49세	65.1	34.9	59.7	40.3	55.2	44.8	30.2	19.4	10.5
50~59세	70.0	30.0	67.5	32.5	63.9	36.1	39.9	35.0	27.9
60~69세	77.9	22.1	71.8	28.2	68.5	31.5	55.9	43.6	36.9
70세 이상	83.2	16.8	78.3	21.7	77.7	22.3	66.5	56.6	55.4

주) 졸업에 수료 포함

< 그림 2 > 성별 대학이상 졸업인구(30세 이상) (2005~2015)



○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는 2010년 11.4년에서 2015년 12.0년으로 0.6년 증가함

- 2000년 10.2년 → 2005년 11.0년 → 2010년 11.4년 → 2015년 12.0년

2. 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인구)

가. 혼인상태별 인구

2010년에 비하여 미혼과 이혼인구 구성비는 0.7%p, 1.1%p 증가하고, 배우자있음은 1.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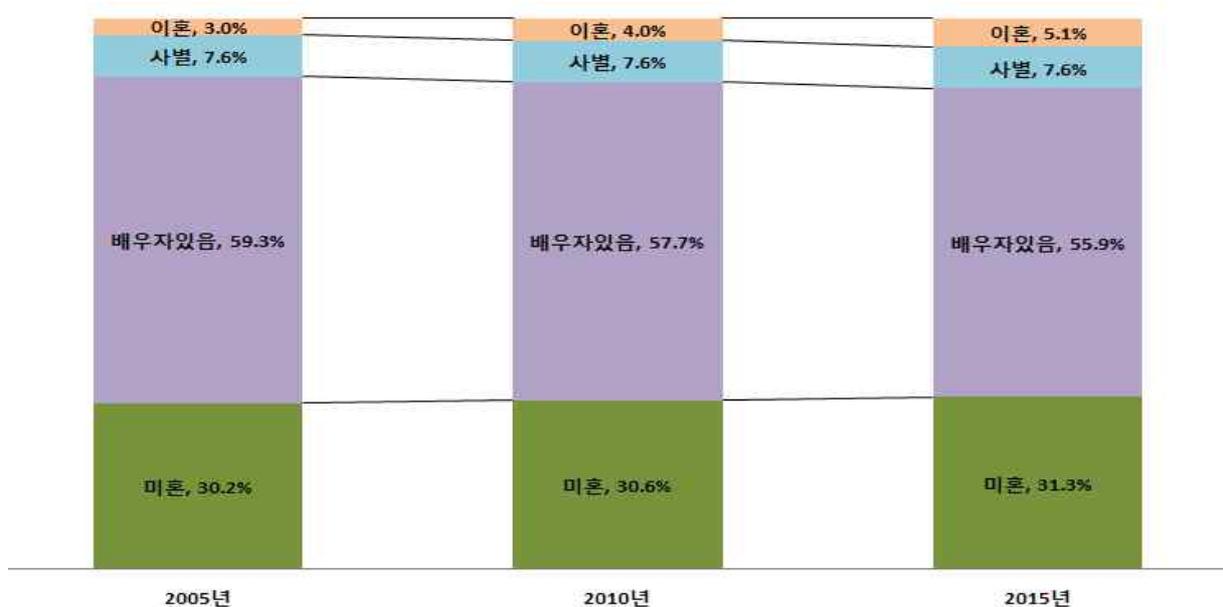
- 2015년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있음이 23,899천명(55.9%)으로 가장 많고, 미혼은 13,376천명(31.3%), 사별 3,266천명(7.6%), 이혼 2,183천명(5.1%) 순임
- 2010년에 비하여 미혼과 이혼은 0.7%p, 1.1%p 증가하고, 배우자있음은 1.8%p 감소

< 표 4 > 혼인상태별 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p)

혼인상태	인구			구성비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계	40,204	42,724	2,520	100.0	100.0	-
미혼	12,312	13,376	1,064	30.6	31.3	0.7
배우자있음	23,214	23,899	685	57.7	55.9	-1.8
사별	3,069	3,266	197	7.6	7.6	0.0
이혼	1,610	2,183	573	4.0	5.1	1.1

< 그림 3 > 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2005~2015)



나.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미혼인구 증가와 함께 25~44세 연령대의 배우자있음 인구구성비가 가장 많이(5.5%p~6.9%p) 감소

- 배우자있음 인구 구성비는 50~54세에서 79.8%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
 - 25~44세 연령대에서, 미혼인구 증가와 함께 배우자있음 인구구성비가 가장 많이 감소(5.5%p~6.9%p)하였음
- 이혼인구 구성비도 50~54세(10.8%)까지 증가한 후 이후 사별인구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대비 이혼인구 구성비는 55~64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3.1%p) 하였음

< 표 5 >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2015)

(단위: %, %p)

성,연령	2015년				증감(15-10)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계	31.3	55.9	7.6	5.1	0.7	-1.8	0.1	1.1
남자	36.0	57.4	2.1	4.5	0.4	-1.2	-0.1	0.9
여자	26.7	54.5	13.1	5.7	0.9	-2.4	0.2	1.3
구성비								
15~19세	99.8	0.1	0.1	0.0	0.1	-0.2	0.1	0.0
20~24세	97.9	1.9	0.1	0.1	0.4	-0.5	0.1	0.0
25~29세	83.9	15.6	0.1	0.4	6.4	-6.4	0.0	-0.1
30~34세	46.9	51.6	0.1	1.4	7.2	-6.9	0.0	-0.2
35~39세	26.2	70.2	0.3	3.3	6.5	-5.5	-0.2	-0.8
40~44세	17.0	75.6	0.7	6.6	6.7	-6.1	-0.4	-0.3
45~49세	10.2	78.4	1.7	9.7	4.7	-5.3	-0.7	1.2
50~54세	5.8	79.8	3.6	10.8	2.6	-3.6	-1.3	2.3
55~59세	3.8	79.5	6.7	10.1	1.8	-2.9	-1.9	3.1
60~64세	2.4	77.8	11.8	8.0	1.2	-1.4	-2.9	3.1
65~69세	1.6	72.9	19.5	6.0	0.7	0.1	-3.6	2.8
70~74세	1.1	64.6	30.4	3.9	0.5	0.9	-3.5	2.1
75~79세	0.8	53.6	43.3	2.3	0.3	3.8	-5.3	1.3
80~84세	0.8	38.5	59.3	1.4	0.3	5.1	-6.1	0.7
85세이상	1.3	21.0	76.8	0.9	0.6	1.1	-2.1	0.4

다. 미혼인구

모든 연령에서 미혼인구비율은 증가하였고, 특히 30대 증가율(7.1%p)이 가장 높음

- 미혼인구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가 2010년 29.2%에서 2015년 36.3%로 7.1%p 증가로 가장 높음
 - 남자는 40대가 10.9%에서 18.2%로 7.3%p 증가하였고, 여자는 30대가 20.4%에서 28.1%로 7.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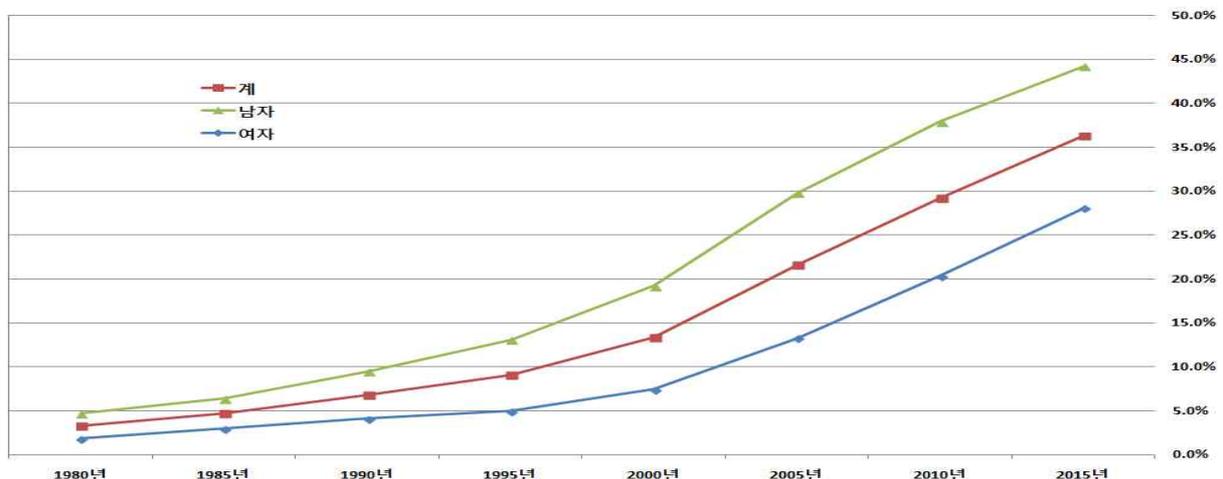
< 표 6 > 연령 및 성별 미혼인구 (2010, 2015)

(단위: %, %p)

연령	2010년			2015년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0.6	35.6	25.8	31.3	36.0	26.7	0.7	0.4	0.9
15~19세	99.7	99.7	99.6	99.8	99.8	99.8	0.1	0.1	0.1
20~29세	86.8	91.8	81.3	91.3	94.7	87.5	4.5	2.9	6.1
30~39세	29.2	37.9	20.4	36.3	44.2	28.1	7.1	6.3	7.7
40~49세	7.9	10.9	4.8	13.6	18.2	8.8	5.7	7.3	4.1
50~59세	2.7	3.4	2.1	4.9	6.4	3.3	2.1	3.0	1.2
60~69세	1.0	1.1	1.0	2.0	2.2	1.9	1.0	1.1	0.9
70세이상	0.6	0.4	0.6	1.0	0.8	1.1	0.5	0.4	0.5

- 30대의 미혼인구비율은 2000년부터 증가 폭이 커져서 2015년에는 36.3%에 이룸

< 그림 4 > 성별 미혼인구(30대) (1980~2015)



남자는 대학교(2~3년제)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24.3%)이 가장 높고, 여자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인구(23.4%)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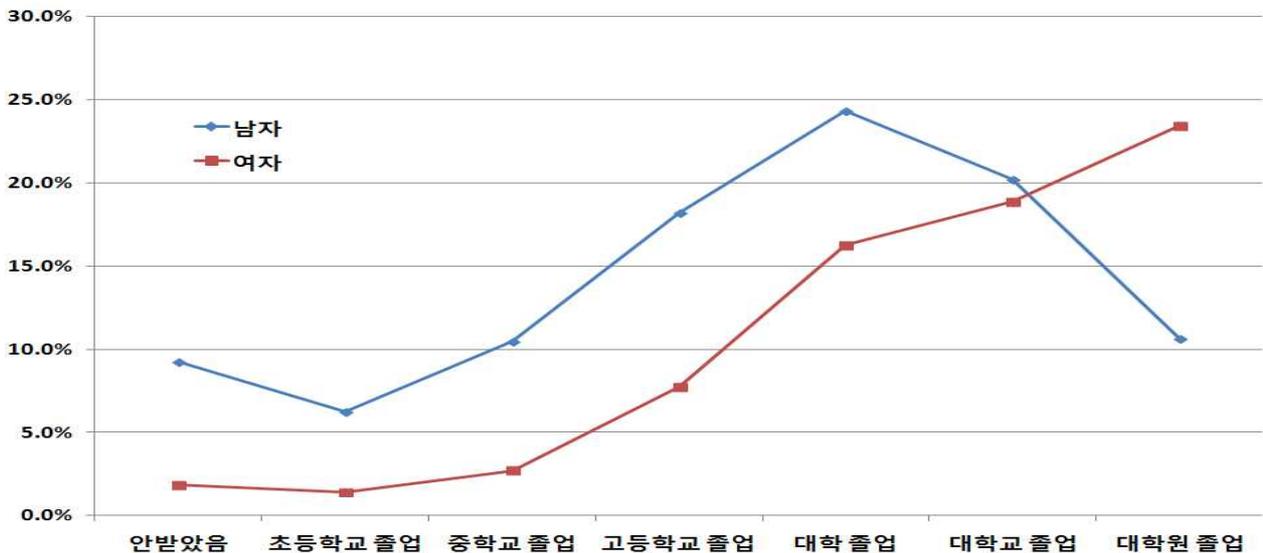
- 교육정도별 미혼인구비율은 보면, 남자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미혼인구 비율이 증가하다가, 대학교(2,3년제) 졸업을 정점(24.3%)으로 감소하고
- 여자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인구도 계속 증가하여 대학원 졸업 인구의 미혼인구비율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7 > 교육정도 및 성별 미혼인구(30세이상) (2010, 2015)

(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계	남	여	계	남	여
미혼인구비율	10.5	14.3	7.0	13.2	17.1	9.4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2.8	8.2	1.4	3.2	9.3	1.8
초등학교 졸업	2.4	5.0	1.0	3.1	6.2	1.4
중학교 졸업	4.9	8.5	2.0	6.2	10.5	2.7
고등학교 졸업	10.8	15.4	6.4	13.0	18.2	7.7
대학교(2,3년제) 졸업	18.0	21.4	14.3	20.3	24.3	16.3
대학교(4년제이상) 졸업	16.7	17.4	15.6	19.7	20.2	18.9
대학원 졸업	13.5	9.6	21.7	15.4	10.6	23.4

< 그림 5 > 교육정도 및 성별 미혼인구(30세이상) (2015)



라. 이혼인구의 세대유형 및 점유형태

이혼인구의 세대유형은 2세대(45.5%), 1인가구(39.2%)순이고, 점유형태는 월세가 39.6%로 가장 많음

- 이혼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세대유형을 보면 2세대 유형이 4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39.2% 순으로 나타남

< 표 8 > 이혼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세대유형(2015)

(단위: 천가구, %)

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1인가구	비친족가구
2,156	58	982	243	845	28
(100.0)	(2.7)	(45.5)	(11.3)	(39.2)	(1.3)

- 이혼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39.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집(39.3%)순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와 비교해 보면 이혼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자기집 비율이 17.5%p 낮고, 월세 비율은 16.7%p 높음

< 표 9 > 이혼한 사람이 있는 가구의 점유형태(2015)

(단위: 천가구, %, %p)

구분	가구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등
전국(A)	19,112 (100.0)	10,850 (56.8)	2,961 (15.5)	4,368 (22.9)	933 (4.9)
이혼(B)	2,156 (100.0)	847 (39.3)	355 (16.4)	853 (39.6)	101 (4.7)
구성비차이 (B-A)	-	-17.5	1.0	16.7	-0.2

3. 종교

가. 성별 종교 현황

종교가 있는 인구는 2005년 52.9%에서 43.9%로 감소하고,
종교가 없는 인구는 2015년 47.1%에서 56.1%로 증가

- 2015년 종교가 있는 인구는 21,55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이며, 2005년 24,526천명(52.9%)에 비하여 2,972천명(9.0%p) 감소
-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은 2005년 47.1%에서 2015년 56.1%로 증가하여 종교가 있는 인구비율보다 높아짐
- 남녀별로 보면, 여자의 종교있는 인구 비율이 48.4%로 남자 39.4%보다 9.0%p 높음

< 표 10 > 성별 종교 인구(1995, 2005, 2015)

(단위: 천명, %)

연도	성별	인구수			구성비		
		계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1995년	계	43,834	22,100	21,735	100.0	50.4	49.6
	남자	21,644	10,080	11,564	100.0	46.6	53.4
	여자	22,190	12,020	10,171	100.0	54.2	45.8
2005년	계	46,352	24,526	21,826	100.0	52.9	47.1
	남자	22,785	11,226	11,559	100.0	49.3	50.7
	여자	23,567	13,300	10,267	100.0	56.4	43.6
2015년	계	49,052	21,554	27,499	100.0	43.9	56.1
	남자	24,207	9,533	14,674	100.0	39.4	60.6
	여자	24,846	12,020	12,825	100.0	48.4	51.6

주) 특별조사구 제외

나. 연령별 현황

종교인구 비율 감소는 40대(13.3%p)가 가장 크고,
다음은 20대(12.8%p), 10대(12.5%p) 순임

- 연령별 종교 없는 인구비율은 20대가 64.9%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대(62.0%) 순임
- 종교가 있는 인구비율은 20대에서 35.1%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여 70대에는 58.2%가 종교를 가지고 있음
- 2015년과 비교하여, 종교 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40대로 13.3%p 감소하였고, 다음이 20대(12.8%p), 10대(12.5%p) 순으로 감소하였음

< 표 11 > 연령대별 종교 여부(2005, 2015)

(단위: %, %p)

연령	2005년		2015년		증감 (B-A)
	없음(A)	있음	없음(B)	있음	
계	47.1	52.9	56.1	43.9	9.0
10~19세	49.5	50.5	62.0	38.0	12.5
20~29세	52.1	47.9	64.9	35.1	12.8
30~39세	52.1	47.9	61.6	38.4	9.5
40~49세	43.5	56.5	56.8	43.2	13.3
50~59세	37.4	62.6	49.3	50.7	11.9
60~69세	36.7	63.3	42.3	57.7	5.6
70세이상	37.0	63.0	41.8	58.2	4.8

주) 특별조사구 제외

다. 지역별 종교 현황

불교는 동쪽지역(울산, 경남, 부산, 경북, 대구 등) 에서, 개신교는 서쪽지역(전북, 서울, 전남, 인천, 경기 등) 에서 종교인구 비율이 높음

- 종교별로는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6천명(19.7%)로 가장 많고, 불교 7,619천명(15.5%), 기독교(천주교) 3,890천명(7.9%) 순임

< 표 12 >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1995년	2005년	2015년	1995년	2005년	2015년
계	43,834	46,352	49,052	100.0	100.0	100.0
종교있음	22,100	24,526	21,554	50.4	52.9	43.9
불교	10,154	10,588	7,619	23.2	22.8	15.5
기독교(개신교)	8,505	8,446	9,676	19.4	18.2	19.7
기독교(천주교)	2,885	5,015	3,890	6.6	10.8	7.9
원불교	86	129	84	0.2	0.3	0.2
유교	210	104	76	0.5	0.2	0.2
천도교	28	45	66	0.1	0.1	0.1
대종교	7	4	3	0.0	0.0	0.0
기타	225	196	139	0.5	0.4	0.3
종교없음	21,735	21,826	27,499	49.6	47.1	56.1

주) 특별조사구 제외

- 시도별 종교별 현황을 보면, 종교인구 중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29.8%), 경남(29.4%), 부산(28.5%), 경북(25.3%), 대구(23.8%), 제주(23.4%), 충북(16.4%) 순이며
-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북(26.9%), 서울(24.2%), 전남(23.2%), 인천(23.1%), 경기(23.0%), 대전(21.8%), 충남(20.7%), 광주(20.0%), 세종(19.9%), 강원(17.5%) 순임

○ 천주교는 서울(10.7%), 인천(9.5%), 경기(9.0%)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천주교를 믿는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13 > 지역 및 종교유형별 인구(2015)

(단위: %)

시도	종교있음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계	15.5	19.7	7.9	0.8	56.1
서울특별시	10.8	24.2	10.7	0.7	53.6
부산광역시	28.5	12.1	5.4	0.8	53.1
대구광역시	23.8	12.0	7.7	0.7	55.8
인천광역시	8.8	23.1	9.5	0.7	57.9
광주광역시	9.5	20.0	8.6	0.8	61.1
대전광역시	14.0	21.8	7.4	0.7	56.2
울산광역시	29.8	10.9	4.2	0.7	54.5
세종특별자치시	13.8	19.9	7.9	0.6	57.8
경기도	10.7	23.0	9.0	0.7	56.7
강원도	16.4	17.5	6.7	0.7	58.7
충청북도	16.4	15.8	7.4	0.5	60.0
충청남도	13.8	20.7	6.2	0.6	58.7
전라북도	8.6	26.9	7.5	2.0	55.0
전라남도	10.9	23.2	5.6	1.0	59.3
경상북도	25.3	13.3	5.2	0.8	55.4
경상남도	29.4	10.5	4.2	0.8	55.1
제주특별자치도	23.4	10.0	7.9	0.7	58.0

주) 특별조사구 제외

4. 사회활동별 인구(중복응답항목, 20세이상)

가. 사회활동 참여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비율은 2010년 33.7%에서 2015년 31.1%로 2.6%p 감소, 분야별로는 종교단체는 감소(3.1%p)하고 문화단체는(3.3%p) 증가

- 20세이상의 사회활동 참여 인구는 12,228천명(31.1%)으로 2010년 12,245천명(33.7%)에 비하여 2.6%p 감소

< 표 14 > 사회활동 참여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p)

연도	20세이상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참여율
2010년(A)	36,348	12,245	33.7
2015년(B)	39,379	12,228	31.1
증 감(B-A)	3,031	-17	-2.6

- 분야별로는 친목단체(17.1%)가 가장 높고, 문화단체(9.2%), 종교단체(7.5%) 순임
- 2010년에 비하여 종교단체는 감소(3.1%p)하고 문화단체는(3.3%p) 증가

< 표 15 >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p)

연도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지역	친목	교육	기타
2010년	999	818	2,122	119	3,838	672	6,515	817	58
2015년	1,619	515	3,615	114	2,942	680	6,716	883	16
참여율									
2010년	2.7	2.3	5.8	0.3	10.6	1.8	17.9	2.2	0.2
2015년	4.1	1.3	9.2	0.3	7.5	1.7	17.1	2.2	0.0
증감	1.4	-0.9	3.3	0.0	-3.1	-0.1	-0.9	0.0	-0.1

나. 성별 사회활동 참여인구

남자의 사회활동 참여 인구 비율은 32.9%로 여자(29.3%)보다 높음

- 20세이상 남자의 사회활동 참여 인구는 6,308천명(32.9%)이 참여하고 있고, 여자는 5,920천명(29.3%)이 참여함
- 2010년과 비교하여 남자 참여율은 28%p 감소하고, 여자 참여율은 25%p 감소

< 표 16 > 성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p)

연도	20세이상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참여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년	36,348	17,460	18,888	12,245	6,236	6,009	33.7	35.7	31.8
2015년	39,379	19,191	20,188	12,228	6,308	5,920	31.1	32.9	29.3
증감	3,031	1,731	1,300	-17	72	-89	-2.6	-2.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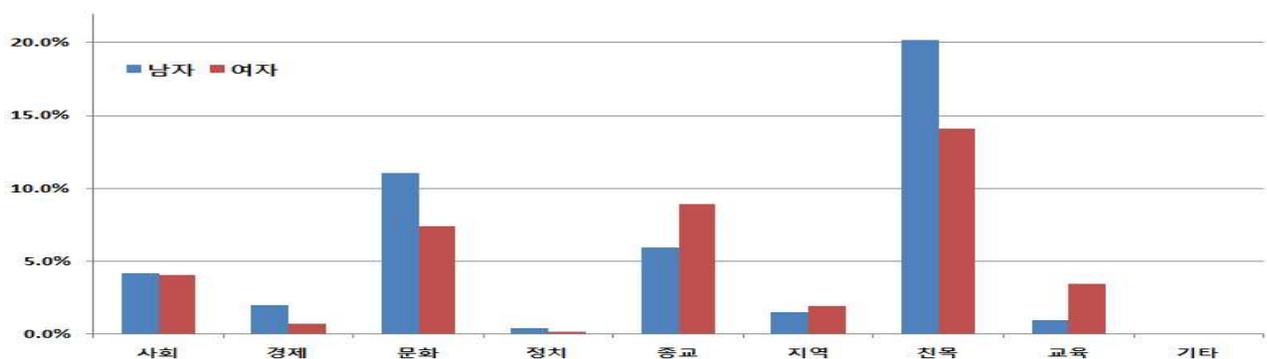
- 분야별로 보면, 남자는 친목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 순이며, 여자는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순임
- 2010년은 남자와 여자 모두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순임

< 표 17 > 성 및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0, 2015)

(단위: %)

구분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지역	친목	교육	기타
2010년	2.7	2.3	5.8	0.3	10.6	1.8	17.9	2.2	0.2
남자	3.0	3.3	7.2	0.5	8.6	2.0	21.3	1.3	0.2
여자	2.6	1.3	4.6	0.2	12.4	1.7	14.8	3.1	0.2
2015년	4.1	1.3	9.2	0.3	7.5	1.7	17.1	2.2	0.0
남자	4.2	2.0	11.1	0.4	5.9	1.5	20.2	1.0	0.0
여자	4.1	0.7	7.4	0.2	8.9	1.9	14.1	3.4	0.0

< 그림 6 > 성별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5)



다. 연령별 사회활동 참여인구

50대 참여율(38.3%)이 가장 높고, 30대 참여율이 가장 많이(4.9%p) 감소

- 연령별로는 50대가 38.3%로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40대 36.5%, 60대 34.5% 등의 순임
 - 2010년에도 50대가 40.7%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39.9%, 60대 34.9%의 순임
- 2010년에 비하여, 30대의 참여율이 32.8%에서 27.9%로 가장 많이 감소(4.9%p)하였으며, 60대가 0.4%p 감소하여 가장 적게 감소함

< 표 18 >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p)

연령	2010년		2015년		참여율		
	20세이상 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20세이상 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2010년	2015년	증감
계	36,348	12,245	39,379	12,228	33.7	31.1	-2.6
20~29세	6,153	1,541	6,108	1,372	25.1	22.5	-2.6
30~39세	7,805	2,562	7,438	2,076	32.8	27.9	-4.9
40~49세	8,210	3,277	8,497	3,102	39.9	36.5	-3.4
50~59세	6,569	2,671	8,018	3,067	40.7	38.3	-2.4
60~69세	3,997	1,396	4,876	1,683	34.9	34.5	-0.4
70세이상	3,614	799	4,441	927	22.1	20.9	-1.2

라. 사회단체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참여인구

고학력일수록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단체별로는 친목단체(17.1%), 문화단체(9.2%)의 참여율이 높음

- 모든 연령대에서 친목단체 참여 비율이 가장 높으며, 50대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24.1%)을 보임
- 경제단체, 문화단체, 교육단체는 4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사회단체는 50대, 종교단체·지역단체는 6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음

< 표 19 > 연령 및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5)

(단위: %)

연령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지역	친목	교육	기타
계	4.1	1.3	9.2	0.3	7.5	1.7	17.1	2.2	0.0
20~29세	3.5	0.6	8.9	0.1	4.5	0.2	10.4	0.7	0.0
30~39세	2.8	1.4	10.2	0.2	5.3	1.0	13.2	3.3	0.0
40~49세	5.4	2.1	11.6	0.4	7.7	1.8	19.6	4.8	0.0
50~59세	5.7	1.8	10.3	0.4	9.4	2.6	24.1	1.8	0.0
60~69세	4.2	0.9	7.3	0.4	10.4	2.7	21.5	0.7	0.0
70세이상	1.8	0.3	3.4	0.2	8.1	2.2	10.2	0.3	0.1

- 졸업 학력 기준으로 보면, 대학원졸업이 49.7%로 가장 참여율이 높으며, 대학교졸업 37.2%, 대학졸업 33.0% 순임
 - 2010년에도 대학원졸업이 57.1%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졸업 41.3%, 대학졸업 35.4% 순임
- 2010년에 비하여, 대학원졸업이 57.1%에서 49.7%로 가장 많이 감소(7.4%p)하였고 대학졸업이 2.4%p로 가장 적게 감소함

< 표 20 > 교육정도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0, 2015)

(단위: 천명, %, %p)

졸업구분	2010년		2015년		참여율		
	20세이상 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20세이상 인구	사회활동 참여인구	2010년	2015년	증감
계	36,348	12,245	39,379	12,228	33.7	31.1	-2.6
안받았음	1,984	301	1,639	190	15.2	11.6	-3.6
초등학교 졸업	3,832	1,033	3,551	792	27.0	22.3	-4.6
중학교 졸업	3,475	1,100	3,425	943	31.6	27.5	-4.1
고등학교 졸업	14,526	4,655	15,281	4,513	32.0	29.5	-2.5
대학교(2,3년제) 졸업	4,045	1,432	4,674	1,543	35.4	33.0	-2.4
대학교(4년제이상) 졸업	7,118	2,942	9,025	3,360	41.3	37.2	-4.1
대학원 졸업	1,369	782	1,783	887	57.1	49.7	-7.4

○ 주요 분야별로 참여율이 높은 시도를 보면,

- 사회단체는 제주(5.9%), 전남(5.6%), 강원(5.5%)이 높고
- 경제단체는 울산(3.2%), 세종(1.8%), 전남(1.7%)이 높고,
- 문화단체는 울산(11.5%), 세종(11.0%), 대전(10.7%)이 높고,
- 지역단체는 세종(3.1%), 제주(2.7%), 전남(2.2%)이 높고,
- 친목단체는 제주(22.7%), 울산(20.0%), 경남(19.9%)이 높고,
- 교육단체는 세종(3.3%), 충북(2.7%), 대전(2.6%)이 높음

< 표 21 > 시도별 사회활동 참여인구(2015)

(단위: %)

시도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지역	친목	교육	기타
전국	4.1	1.3	9.2	0.3	7.5	1.7	17.1	2.2	0.0
서울특별시	3.7	1.1	9.8	0.3	9.2	1.4	15.8	2.4	0.0
부산광역시	3.3	1.0	8.2	0.3	5.8	1.4	17.9	1.9	0.0
대구광역시	4.0	1.1	9.8	0.3	6.4	1.4	18.6	2.2	0.0
인천광역시	3.2	1.0	7.8	0.2	7.2	1.4	13.8	2.0	0.0
광주광역시	4.3	1.4	9.3	0.4	7.9	1.5	16.7	2.4	0.0
대전광역시	4.3	1.5	10.7	0.3	8.6	1.5	18.1	2.6	0.1
울산광역시	5.5	3.2	11.5	0.4	5.5	2.0	20.0	2.5	0.0
세종특별자치시	4.8	1.8	11.0	0.3	7.4	3.1	17.1	3.3	0.1
경기도	3.6	1.1	9.5	0.2	8.0	1.7	15.0	2.3	0.1
강원도	5.5	1.5	9.2	0.3	6.5	1.9	19.5	2.3	0.0
충청북도	4.9	1.5	9.0	0.3	6.7	2.0	19.6	2.7	0.0
충청남도	4.5	1.5	8.3	0.3	6.5	2.2	19.5	2.1	0.0
전라북도	4.3	1.7	8.3	0.4	8.6	1.8	19.3	2.2	0.0
전라남도	5.6	1.7	7.5	0.4	7.4	2.24	18.8	1.9	0.0
경상북도	5.2	1.4	8.1	0.3	5.9	2.23	18.2	2.0	0.0
경상남도	5.1	1.5	9.5	0.3	5.5	2.0	19.9	2.0	0.0
제주특별자치도	5.9	1.5	8.3	0.4	5.6	2.7	22.7	2.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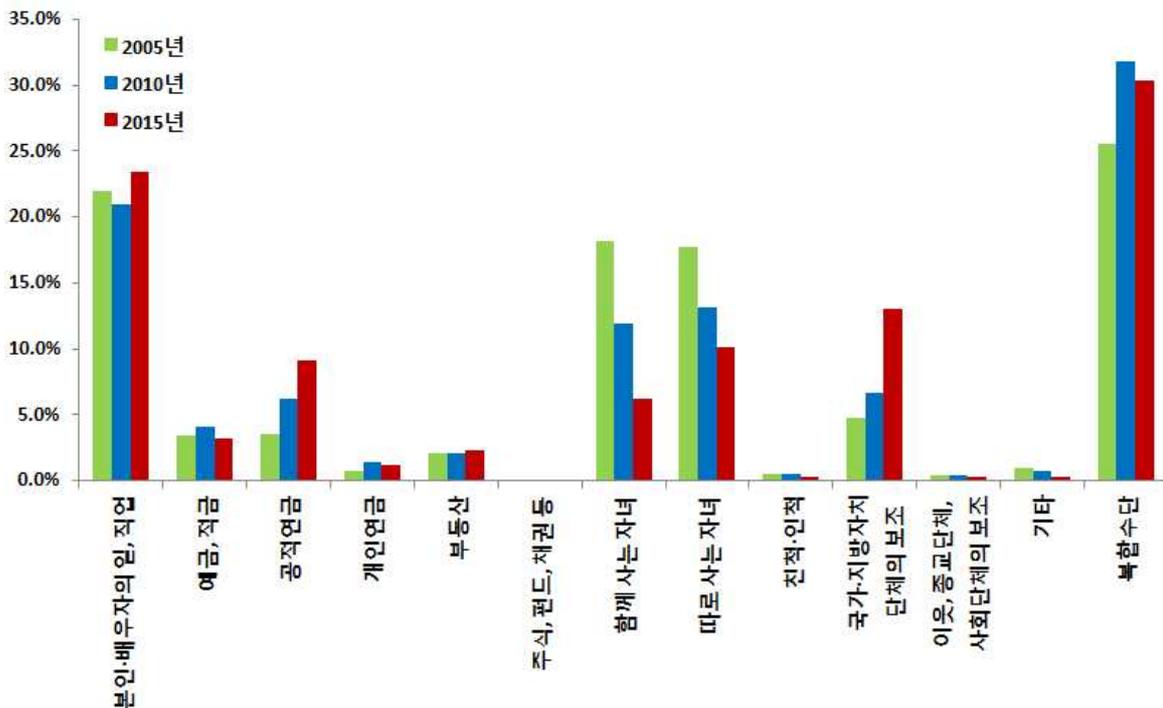
5. 고령자 생활비원천별 인구

가. 고령자 생활비원천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이 2,182천명(23.4%)으로 가장 많고, 증가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6.3%p)가 가장 높게 증가했고, 「자녀」의 비율(8.7%p)은 가장 많이 감소

- 60세 이상의 생활비 원천은 단일응답에서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이 2,182천명(23.4%)로 가장 많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1,213천명(13.0%), 「따로 사는 자녀」 946천명(10.1%) 순임
 - 2010년에는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20.9%), 「따로 사는 자녀」(13.1%), 「함께 사는 자녀」(12.0%)순임
- 2010년에 비하여,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2.5%p), 「공적연금」(3.0%p)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6.3%p)는 증가하고 자녀의 비율(8.7%p)은 감소

< 그림 7 > 고령자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60세이상)(2005~2015)



< 표 22 > 고령자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60세이상) (2010, 2015)

(단위: 천명, %)

고령자생활비원천	2010년			2015년		
	60세이상	남자	여자	60세이상	남자	여자
계	7,611	3,264	4,347	9,318	4,105	5,213
단일수단	5,186	2,152	3,035	6,486	2,882	3,604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1,593	895	699	2,182	1,266	915
예금, 적금	309	135	174	301	132	169
공적연금	471	256	215	854	430	424
개인연금	105	50	55	113	55	58
부동산	161	74	87	215	94	121
주식, 펀드, 채권 등	4	2	2	4	2	2
함께 사는 자녀	910	220	690	580	142	437
따로 사는 자녀	1,000	312	688	946	240	706
친척·인척	38	11	26	32	12	20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511	165	346	1,213	489	724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보조	29	11	18	23	10	13
기타	56	21	34	23	9	14
복합수단	2,425	1,112	1,312	2,832	1,223	1,60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68.1	65.9	69.8	69.6	70.2	69.1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20.9	27.4	16.1	23.4	30.9	17.6
예금, 적금	4.1	4.1	4.0	3.2	3.2	3.2
공적연금	6.2	7.8	4.9	9.2	10.5	8.1
개인연금	1.4	1.5	1.3	1.2	1.3	1.1
부동산	2.1	2.3	2.0	2.3	2.3	2.3
주식, 펀드, 채권 등	0.1	0.1	0.0	0.0	0.1	0.0
함께 사는 자녀	12.0	6.7	15.9	6.2	3.5	8.4
따로 사는 자녀	13.1	9.6	15.8	10.1	5.8	13.5
친척·인척	0.5	0.3	0.6	0.3	0.3	0.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6.7	5.1	8.0	13.0	11.9	13.9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보조	0.4	0.3	0.4	0.2	0.2	0.3
기타	0.7	0.7	0.8	0.2	0.2	0.3
복합수단	31.9	34.1	30.2	30.4	29.8	30.9

나. 연령별 고령자생활비원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

- 연령별로 60대는 「본인·배우자의일,직업」이 37.5%로 가장 높고, 70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17.9%), 80대는 「따로 사는 자녀」(19.8%)가 가장 높음
-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60대 11.1%, 70대 18.7%, 80대이상은 30.3%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

< 표 23 > 연령별 고령자 생활비 원천(60세이상) (2015)

(단위: %)

고령자생활비원천	계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69.6	73.8	65.1	64.9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23.4	37.5	10.5	2.0
예금, 적금	3.2	3.5	3.2	2.3
공적연금	9.2	9.1	9.8	7.8
개인연금	1.2	1.3	1.3	0.8
부동산	2.3	2.0	3.0	1.8
주식, 펀드, 채권 등	0.0	0.1	0.0	0.0
함께 사는 자녀	6.2	4.6	7.0	10.5
따로 사는 자녀	10.1	6.5	11.7	19.8
친척·인척	0.3	0.4	0.2	0.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13.0	8.4	17.9	18.7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보조	0.2	0.2	0.2	0.3
기타	0.2	0.2	0.2	0.4
복합수단	30.4	26.2	34.9	35.1

다. 교육정도별 고령자생활비원천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공적연금」의 비율이 높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함

-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비율은 받지 않았음(미취학포함)이 5.9%로 고등학교 졸업(31.5%)이 25.6%p 높고, 「공적연금」도 받지 않았음(미취학포함)이 5.7%로 대학교이상(18.4%) 비율이 12.7%p 높음
-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이상이 각각 3.0%, 5.0%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율이 낮게 나타남

< 표 24 > 교육정도별 고령자 생활비 원천(60세이상)(2015)

(단위: %)

고령자생활비원천	계	받지 않았음 (미취학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69.6	65.6	68.3	71.7	72.2	69.2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23.4	5.9	19.1	29.7	31.5	27.8
예금, 적금	3.2	1.3	2.6	3.5	4.2	4.7
공적연금	9.2	5.7	6.5	7.8	10.7	18.4
개인연금	1.2	0.5	0.9	1.2	1.6	1.9
부동산	2.3	1.1	2.0	2.6	2.8	2.9
주식, 펀드, 채권 등	0.0	0.0	0.0	0.0	0.1	0.2
함께 사는 자녀	6.2	8.5	7.6	5.8	5.3	3.0
따로 사는 자녀	10.1	16.7	12.0	9.1	7.7	5.0
친척·인척	0.3	0.4	0.3	0.3	0.4	0.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13.0	24.8	16.8	11.4	7.5	4.1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보조	0.2	0.3	0.2	0.2	0.2	0.5
기타	0.2	0.4	0.2	0.2	0.3	0.2
복합수단	30.4	34.4	31.7	28.3	27.8	30.8

라.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2010년 44.6%에서 2015년 49.7%로 5.1%p 증가

○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49.7%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39.3%임

* 본인 스스로 마련 =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예금, 적금 + 공적연금 + 개인연금 + 부동산 + 주식, 펀드, 채권 등

※ 생활비원천 항목은 최대 2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를 각각 분리하여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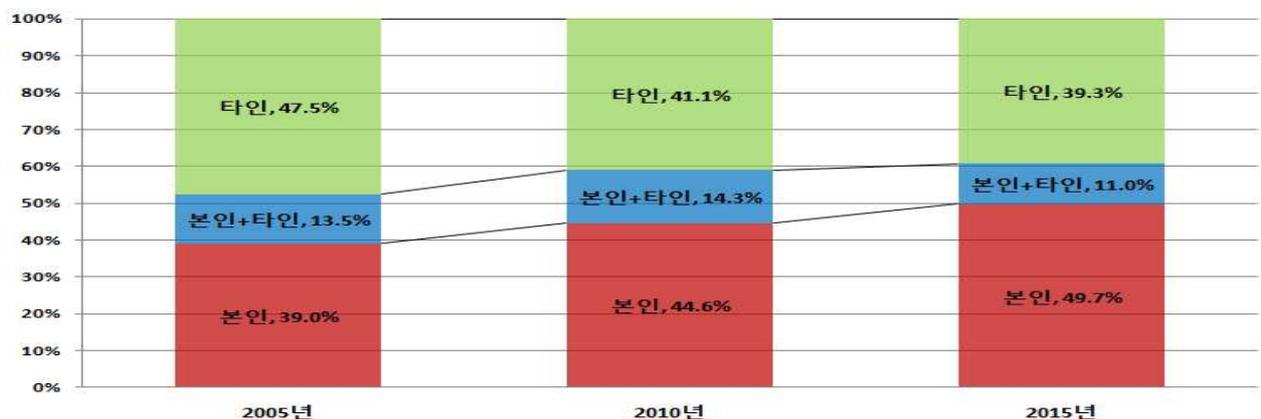
- 남자는 62.7%가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나 여자는 39.6%에 불과
-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생활비 마련 비율이 높아 대학 이상은 76.0%이며, 받지않았음은 18.0%에 불과함

< 표 25 >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고령자 생활비 원천(2015)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계	본인	본인+타인	타인	본인	본인+타인	타인	
계	9,318	4,635	1,024	3,659	49.7	11.0	39.3	
성별	남자	4,105	2,573	397	1,135	62.7	9.7	27.6
	여자	5,213	2,062	627	2,524	39.6	12.0	48.4
연령	60~69세	4,876	3,260	448	1,169	66.9	9.2	24.0
	70~79세	3,113	1,136	421	1,556	36.5	13.5	50.0
	80세이상	1,329	240	155	934	18.0	11.7	70.3
교육 정도	받지 않았음 (미취학 포함)	1,234	222	133	879	18.0	10.8	71.2
	초등학교	2,925	1,130	364	1,431	38.6	12.5	48.9
	중학교	1,728	949	196	583	54.9	11.3	33.8
	고등학교	2,237	1,428	232	578	63.8	10.4	25.8
	대학이상	1,193	906	99	188	76.0	8.3	15.7

< 그림 8 > 생활비 자금도별 고령자(60세이상) (2005~2015)



II. 가구 및 주택부문

1. 사용방수별 가구

가구당 평균사용방수가 2010년 3.7개에서 2015년 3.8개 증가하고, 1인가구의 증가로 사용방수 1개인 가구 비율이 증가

- 2015년 일반가구의 사용방수를 보면, 4개인 가구가 6,916천가구 (36.2%)로 가장 많고, 5개 4,105천가구(21.5%), 3개 3,888천가구 (20.3%) 등의 순임
- 2010년에 비하여 사용방수가 4개인 가구 비율은 43.1%에서 36.2%로 6.9%p 감소하였고, 사용방수가 5개인 가구 비율이 16.2%에서 21.5%로 5.3%p 증가함
- 전체적으로 사용방수 2개, 3개, 4개인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1개, 5개, 6개이상인 가구 비율은 증가함
 - 1인가구의 증가로 사용방수 1개인 가구 비율이 증가
- 가구당 평균사용방수는 3.8개로 2010년 3.7개에 비해 0.1개 많아짐
 - 1인당 평균사용방수도 2010년 1.4개에서 1.5개로 높아짐

< 표 26 > 사용방수별 가구수(2005~2015)

(단위: 가구, 개, %)

사용방수	가구수			구성비		
	2005년	2010년	2015년	2005년	2010년	2015년
계	15,887	17,339	19,112	100.0	100.0	100.0
1개	1,025	1,310	1,648	6.5	7.6	8.6
2개	1,323	1,195	1,279	8.3	6.9	6.7
3개	4,070	3,701	3,888	25.6	21.3	20.3
4개	6,887	7,473	6,916	43.4	43.1	36.2
5개	1,916	2,817	4,110	12.1	16.2	21.5
6개 이상	665	843	1,271	4.2	4.9	6.7
가구당 평균사용방수	3.6	3.7	3.8			

주) 사용방수 : 잠자는 방+기타방+거실+식사용방

2. 방 1개 사용 가구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는 20대(35.2%), 혼인 상태는 미혼(67.2%), 점유형태는 월세(71.5%)가 가장 많음

-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35.2%로 가장 많고, 30대(22.1%), 40대(15.7%)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28.9%p, 6.0%p 높은 반면, 50대와 70대는 11.3%p, 9.4%p 낮음

< 표 27 >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2015)

(단위: 천명, %, %p)

구분	가구수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전체	19,112	72	1,199	3,084	4,413	4,589	2,960	2,794
(A)	100.0	0.4	6.3	16.1	23.1	24.0	15.5	14.6
방 1개	1,648	48	579	364	259	210	101	86
(B)	100.0	2.9	35.2	22.1	15.7	12.7	6.2	5.2
구성비 차이 (B-A)	0.0	2.5	28.9	6.0	-7.4	-11.3	-9.3	-9.4

- 방 1개를 사용하는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이 67.2%로 가장 많고, 배우자있음(15.0%), 이혼(11.9%), 사별(5.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비교해 보면 방 1개 사용하는 가구가 미혼은 51.9%p 높은 반면, 배우자 있음은 48.3%p 낮음

< 표 28 >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혼인상태(2015)

(단위: 천명, %, %p)

구분	가구수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전체	19,112	2,916	12,110	2,363	1,723
(A)	100.0	15.3	63.4	12.4	9.0
방 1개	1,648	1,107	248	98	195
(B)	100.0	67.2	15.0	5.9	11.9
구성비차이 (B-A)	0.0	51.9	-48.3	-6.4	2.8

○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의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71.5%로 가장 많고, 전세(15.2%), 사글세 등(9.3%)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점유형태와 비교해 보면 월세가 48.6%p 높은 반면, 자기집은 52.9%p 낮음

< 표 29 > 방 1개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점유형태(2015)

(단위: 천명, %, %p)

구분	가구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등
전체(A)	19,112	10,850	2,961	4,368	933
	100.0	56.8	15.5	22.9	4.9
방 1개	1,648	65	251	1,178	153
(B)	100.0	3.9	15.2	71.5	9.3
구성비 차이(B-A)	0.0	-52.9	-0.3	48.6	4.4

3. 점유형태별 가구

가. 가구의 점유형태

전세 거주비율은 감소(-6.2%p)하고 자기집(2.6%p)과 월세가구(2.8%p)는 증가, 월세가구 비율(22.9%)이 전세가구 비율(15.5%)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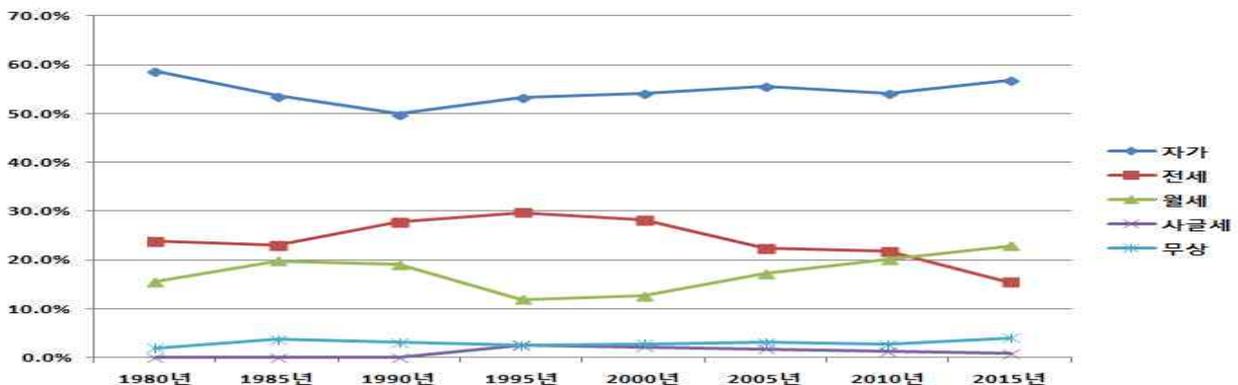
- 2015년 점유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56.8%로 가장 높고, 월세 22.9%, 전세 15.5%, 사글세 0.8%, 무상 4.0% 순임
 - 2010년에는 자기집(54.2%), 전세(21.7%), 월세(20.1%) 등의 순임
- 2010년에 비하여 자기집과 월세의 비중이 각각 2.6%p와 2.8%p 증가하고 전세는 6.2%p 감소
 - 무상은 2010년 2.7%에서 2015년 4.0%로 1.3%p 증가

< 표 30 > 점유형태별 가구수(1980~2015)

(단위: 천가구, %)

점유형태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일반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2
자기집	4,672	5,127	5,667	6,910	7,753	8,828	9,390	10,850
전세	1,904	2,202	3,157	3,845	4,040	3,557	3,766	2,961
월세	1,231	1,893	2,173	1,536	1,803	2,728	3,490	4,368
사글세	0	0	0	339	310	284	230	161
무상	162	350	358	328	406	490	464	77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기집	58.6	53.6	49.9	53.3	54.2	55.6	54.2	56.8
전세	23.9	23.0	27.8	29.7	28.2	22.4	21.7	15.5
월세	15.5	19.8	19.1	11.9	12.6	17.2	20.1	22.9
사글세	0.0	0.0	0.0	2.6	2.2	1.8	1.3	0.8
무상	2	3.7	3.1	2.5	2.8	3.1	2.7	4.0

< 그림 9 > 점유형태별 가구(1980~2015)



나. 지역별 점유형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자기집 비율이 낮고, 전세와 월세 비율이 높음

- 수도권의 자기집 거주가구 비중은 48.9%로 비수도권의 64.1%에 비하여 15.2%p 낮음
 - 전세가구는 수도권이 22.0%이고 비수도권이 9.5%로 수도권이 12.5%p 높음
- 2010년과 비교하면, 전세가구의 감소 규모가 수도권(7.6%p)이 비수도권(5.2%p) 보다 크게 나타남
 - 월세가구도 수도권(3.4%p)이 비수도권(2.1%p) 보다 증가폭이 큼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세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자기집과 월세가구 및 무상가구의 비중은 증가
 -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자기집 구입과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표 31 > 수도권, 비수도권별 점유형태별 가구수(2010, 2015)

(단위: 천가구, %)

점유형태	2010년			2015년		
	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가구	17,339	8,254	9,085	19,112	9,215	9,897
자기집	9,390	3,832	5,558	10,850	4,504	6,346
전세	3,766	2,438	1,329	2,961	2,023	938
월세	3,490	1,787	1,703	4,368	2,308	2,059
사글세	230	45	185	161	34	127
무상	464	153	310	773	346	4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기집	54.2	46.4	61.2	56.8	48.9	64.1
전세	21.7	29.5	14.6	15.5	22.0	9.5
월세	20.1	21.6	18.7	22.9	25.0	20.8
사글세	1.3	0.5	2.0	0.8	0.4	1.3
무상	2.7	1.9	3.4	4.0	3.8	4.3

다. 시도별 점유형태

서울이 자기집 거주비율(42.1%)이 가장 낮고, 전세(26.2%)와 월세비율(28.1%)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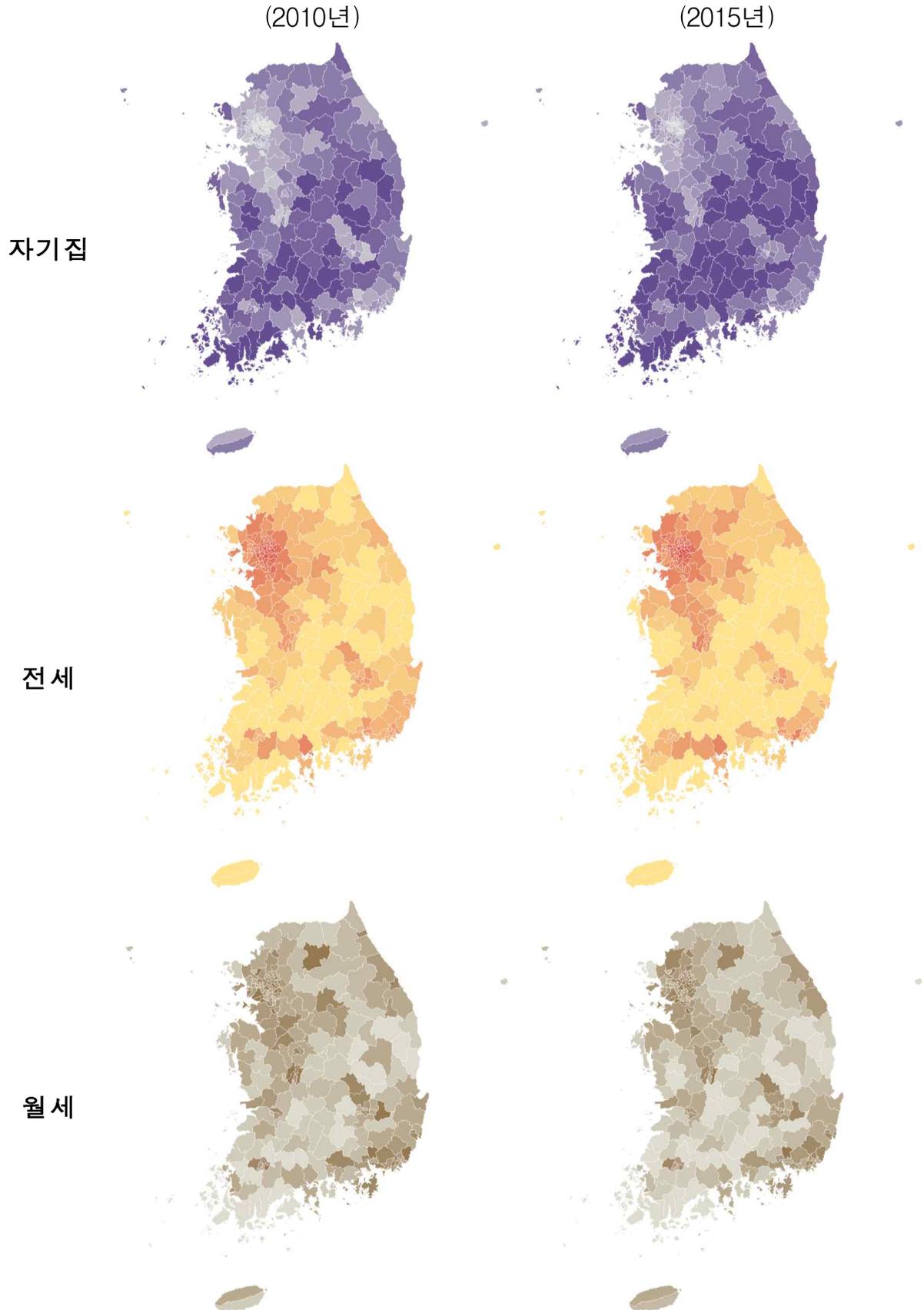
- 자기집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73.4%이고 경북이 69.6%, 전북이 68.6% 등의 순임
 - 특광역시에서는 울산이 62.7%로 가장 높고 광주 61.6%, 부산 61.3% 등의 순임
 - 전세가구는 서울이 26.2%로 가장 높고, 제주가 3.3%로 가장 낮음
 - 월세가구도 서울이 28.1%로 가장 높고, 전남이 12.4%로 가장 낮음
- 2010년에 비하여 자기집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 충남으로 4.4%p이고, 부산 3.4%p, 경남 3.4%p 순임
 - 전세가구 비중이 증가한 시도는 없고, 가장 많이 감소한 시도는 경기 8.4%p, 부산 7.5%p, 대구 7.4%p 순으로 감소
 - 월세는 대구가 4.6%p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서울 4.0%p, 광주 3.6% 순으로 증가

< 표 32 > 지역별 점유형태별 가구수(2010, 2015)

(단위: %)

시도	2010년					2015년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전국	54.2	21.7	20.1	1.3	2.7	56.8	15.5	22.9	0.8	4.0
서울특별시	41.1	32.9	24.1	0.5	1.4	42.1	26.2	28.1	0.4	3.2
부산광역시	57.8	18.8	21.1	0.3	2.0	61.3	11.3	24.6	0.1	2.7
대구광역시	55.5	20.0	19.6	2.8	2.1	58.7	12.6	24.2	1.3	3.3
인천광역시	55.5	23.0	18.8	0.5	2.1	58.7	16.1	20.9	0.4	3.8
광주광역시	58.9	15.3	21.0	2.8	2.0	61.6	9.7	24.6	1.3	2.7
대전광역시	50.8	19.6	25.6	1.3	2.7	53.8	15.5	26.3	0.7	3.6
울산광역시	59.7	14.8	22.0	0.4	3.1	62.7	9.2	23.8	0.2	4.2
세종특별자치시	-	-	-	-	-	53.5	16.4	21.6	3.8	4.7
경기도	49.1	28.0	20.1	0.5	2.2	52.3	19.7	23.4	0.4	4.2
강원도	59.0	13.5	19.8	1.8	5.9	61.9	9.0	20.2	1.6	7.3
충청북도	61.8	14.1	18.6	1.8	3.6	65.1	10.0	19.1	1.3	4.5
충청남도	61.0	15.1	16.8	2.2	4.8	65.4	9.6	17.7	1.8	5.4
전라북도	67.5	10.5	17.2	1.7	3.1	68.6	7.5	18.9	1.1	3.9
전라남도	70.7	11.8	11.2	2.0	4.3	73.4	7.7	12.4	1.4	5.0
경상북도	66.4	10.7	15.7	3.3	4.0	69.6	5.9	17.8	2.0	4.7
경상남도	63.2	12.8	20.2	0.5	3.4	66.5	8.1	21.0	0.3	4.1
제주특별자치도	56.5	5.8	12.5	17.3	7.9	58.3	3.3	18.4	10.7	9.3

< 그림 10 > 시군구별 점유형태별 분포(2010~2015)



라. 가구주의 연령별 점유형태

30대와 40대에서 자기집의 비율이 각각 2.4%p와 1.5%p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 점유형태 분포를 보면, 20대이하는 월세, 30대 이상은 자기집의 비율이 가장 높음
- 2010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전세비율은 감소하고 월세 비율은 증가함
- 30대와 40대에서 자기집의 비율이 각각 2.4%p와 1.5%p 상승하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대부분 감소함
 - 전세가격상승으로 30~40대의 자기집 구입 증가

< 표 33 > 가구주의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수(2010, 2015)

(단위: %)

	2010년						2015년					
	계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100.0	54.2	21.7	20.1	1.3	2.7	100.0	56.8	15.5	22.9	0.8	4.0
20세미만	100.0	5.7	11.7	68.9	10.0	3.7	100.0	4.7	6.9	74.6	8.4	5.4
20~29세	100.0	11.9	28.5	52.1	3.6	3.9	100.0	10.4	19.8	60.1	3.2	6.5
30~39세	100.0	36.8	34.3	24.3	0.9	3.8	100.0	39.2	27.2	27.5	0.5	5.6
40~49세	100.0	52.3	24.1	19.7	1.2	2.6	100.0	53.8	17.7	23.4	0.6	4.5
50~59세	100.0	63.8	16.7	16.2	1.2	2.1	100.0	62.6	12.6	20.6	0.7	3.5
60~69세	100.0	74.0	12.2	11.1	1.0	1.6	100.0	72.4	9.3	15.0	0.7	2.6
70~79세	100.0	75.6	11.7	9.4	1.1	2.1	100.0	76.7	8.5	11.4	0.6	2.7
80세이상	100.0	71.1	13.0	10.9	1.5	3.6	100.0	74.6	8.9	11.8	0.7	4.0

4. 총방수별 주택

방이 4개인 주택은 감소(11.6%p)하고, 5개인 주택은 증가(9.3%p)

- 2015년 총방수별 주택을 보면, 총방수가 4개인 주택이 36.3%로 가장 많고, 5개가 28.7%, 3개가 15.0% 순임
- 2010년과 비교해서 총방수가 3개와 4개인 주택은 각각 1.4%p와 11.6%p 감소했고, 5개와 6개는 9.3%p와 2.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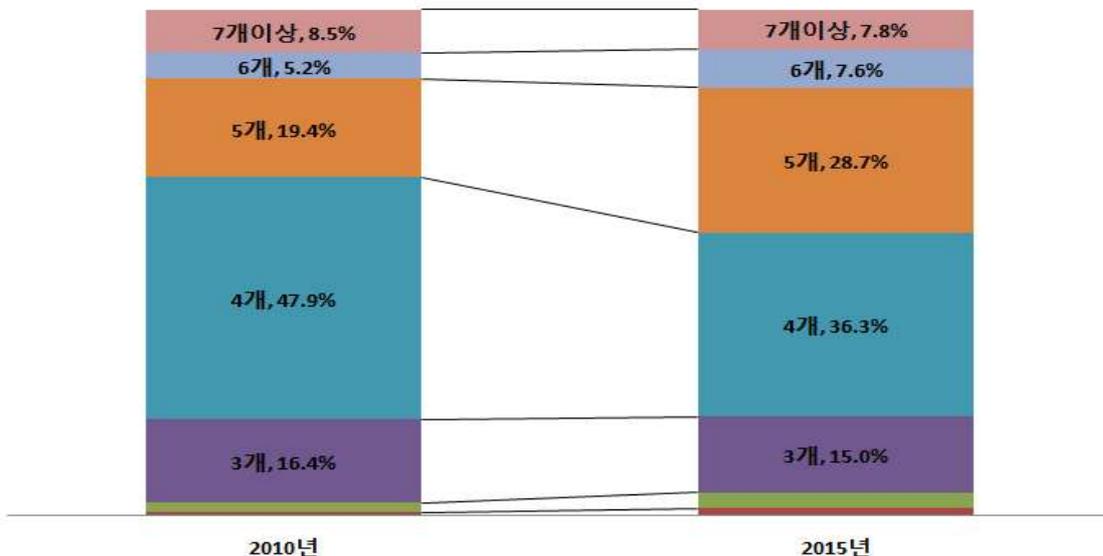
< 표 34 > 총방수별 주택 (2010, 2015)

(단위: 호, %)

총방수	주택수		구성비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계	13,884	15,298	100.0	100.0
1개	83	235	0.6	1.5
2개	270	473	1.9	3.1
3개	2,283	2,302	16.4	15.0
4개	6,650	5,546	47.9	36.3
5개	2,694	4,386	19.4	28.7
6개	721	1,168	5.2	7.6
7개 이상	1,183	1,188	8.5	7.8

주) 총방수 : 방+거실+식사용방

< 그림 11 > 총방수별 주택(2010, 2015)



- 단독주택은 총방수가 7개 이상인 주택이 가장 많고, 그 외의 거처의 종류는 4개가 가장 많음
- 아파트의 경우 총방수 4개인 주택비율이 57.0%에서 39.1%로 17.9%p 감소하고 5개인 주택 비율이 18.9%에서 32.3%로 13.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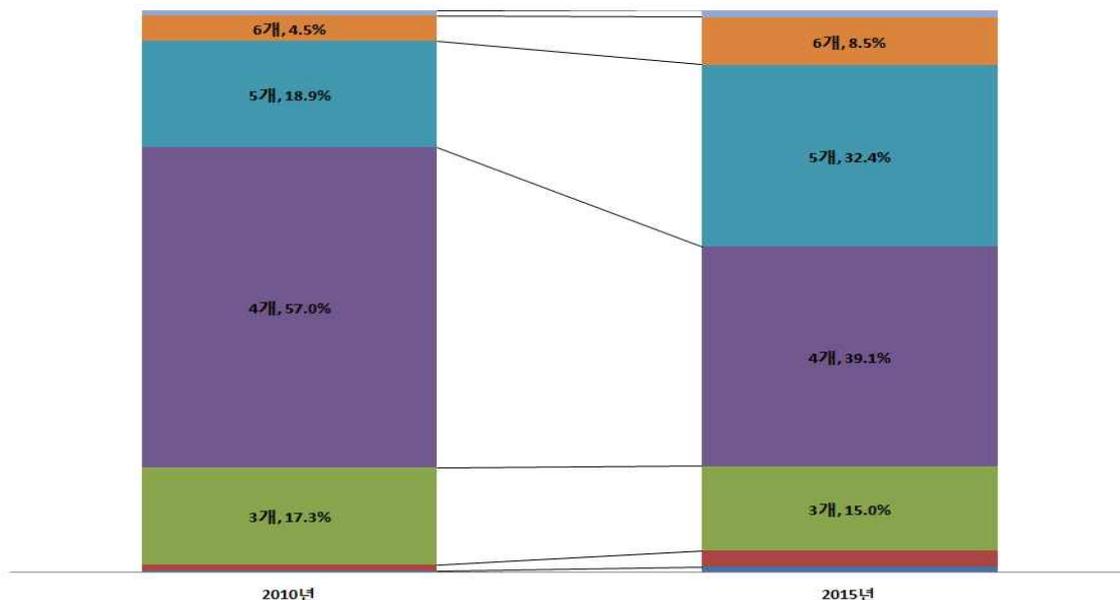
< 표 35 > 거처의 종류별 총 방수(2010, 2015)

(단위: %)

총방수	2010년					2015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개	0.6	0.2	0.6	2.6	5.4	0.6	1.0	1.9	6.1	3.5
2개	2.9	1.1	1.7	3.7	9.0	3.0	2.9	2.2	4.4	5.7
3개	11.8	17.3	20.9	23.5	14.5	11.1	15.0	19.8	22.7	13.2
4개	24.6	57.0	57.1	58.5	22.1	23.3	39.1	46.9	47.4	25.2
5개	23.8	18.9	15.7	10.8	17.7	25.3	32.4	23.5	18.1	24.2
6개	8.2	4.5	2.7	0.8	9.5	8.6	8.5	4.4	1.1	11.6
7개이상	28.2	0.9	1.2	0.2	21.8	28.0	1.2	1.3	0.1	16.5
평균방수	6.6	4.1	4.0	3.7	5.3	6.6	4.3	4.1	3.7	5.2

주) 잠자는 방, 기타방, 거실, 식사용방 합산

< 그림 12 > 총방수별 아파트(2010, 2015)



5. 1인 가구의 혼인상태 및 주거현황

가. 혼인상태별 1인가구

미혼 1인가구가 443천명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이혼인구가 51.9%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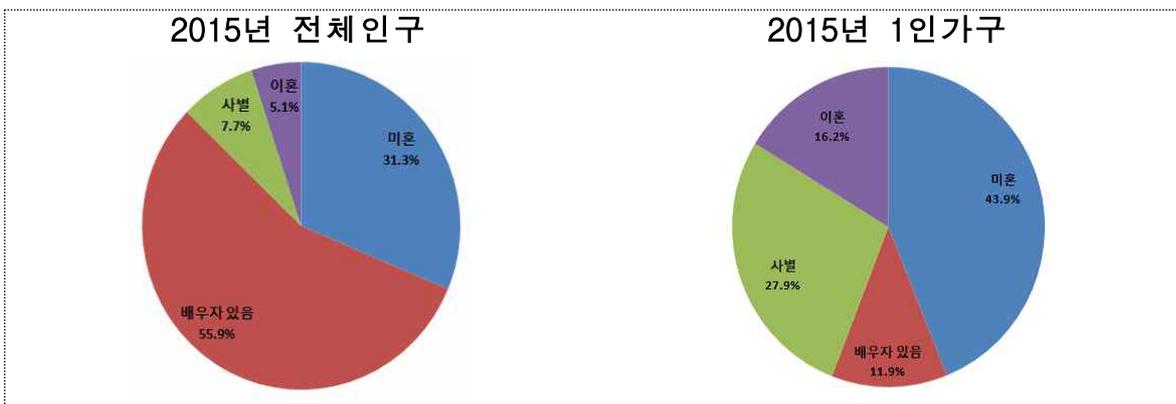
- 미혼인구가 2,286천명(43.9%)으로 제일 많고, 사별인구 1,451명(27.9%), 이혼인구 845천명(16.2%), 배우자있음 인구 621천명(11.9%) 등임
- 2010년 대비 미혼이 443천명(24.0%)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음
- 이혼인구는 289천명 증가하여 51.9%의 증가율을 보임
-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1인가구의 배우자있음 인구는 44.0%p 더 낮으며, 사별(20.2%p), 미혼(12.6%p), 이혼(11.1%p) 더 많음

< 표 36 > 혼인상태별 1인가구(2010, 2015)

(단위: 천명, %)

혼인상태	2010		2015		증감		증감율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계	40,204	4,142	42,724	5,203	2,521	1,061	6.3	25.6
미혼	12,312	1,843	13,376	2,286	1,065	443	8.6	24.0
배우자 있음	23,214	534	23,899	621	685	87	3.0	16.3
사별	3,069	1,208	3,280	1,451	211	243	6.9	20.1
이혼	1,610	556	2,169	845	559	289	34.8	51.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0	0.0		
미혼	30.6	44.5	31.3	43.9	0.7	-0.6		
배우자 있음	57.7	12.9	55.9	11.9	-1.8	-1.0		
사별	7.6	29.2	7.7	27.9	0.0	-1.3		
이혼	4.0	13.4	5.1	16.2	1.1	2.8		

< 그림 13 > 혼인상태별 1인가구(15세이상) (2015)



나. 점유형태별 1인가구

월세가 2,213천가구(42.5%)로 가장 많고, 1인가구 증가분 1,061천가구 중 월세가 54.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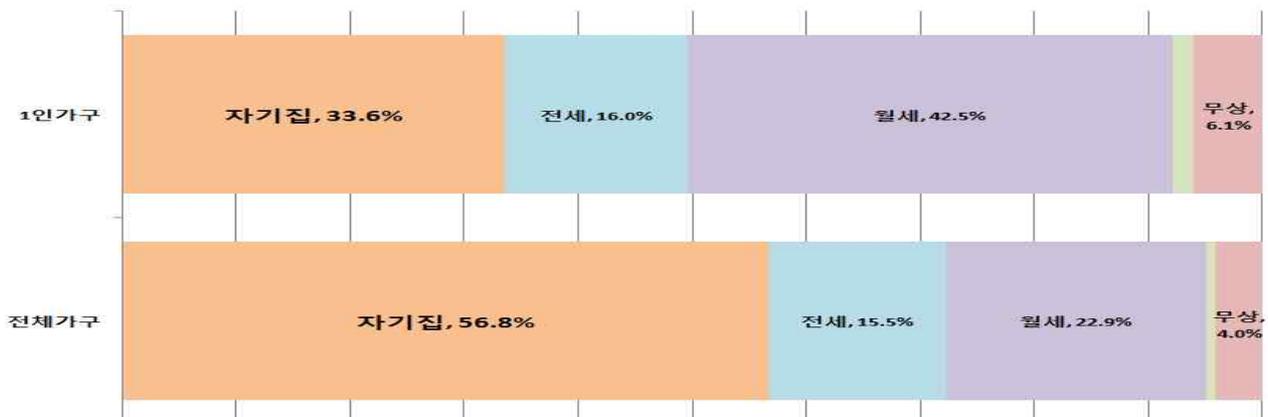
- 1인가구는 월세가 2,213천가구(42.5%)로 가장 많고 자기집 1,750천가구(33.6%), 전세 831천가구(16.0%) 순임
 - 전체가구에 비해 자기집은 23.2%p 낮고, 월세는 19.6%p 높음
- 2010년에 비해 월세가 577천가구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무상은 161천가구 증가하여 102.8%의 증가율을 보임

< 표 37 > 점유형태별 1인가구(2010, 2015)

(단위: 천가구, %, %p)

점유형태	2010		2015		증감		증감율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계	17,339	4,142	19,112	5,203	1,772	1,061	10.2	25.6
자기집	9,390	1,323	10,850	1,750	1,460	428	15.6	32.3
전세	3,766	903	2,961	831	-806	-72	-21.4	-7.9
월세	3,490	1,636	4,368	2,213	878	577	25.2	35.3
사글세	230	124	161	91	-69	-32	-30.0	-26.2
무상	464	157	773	317	309	161	66.6	102.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0	0.0		
자기집	54.2	31.9	56.8	33.6	2.6	1.7		
전세	21.7	21.8	15.5	16.0	-6.2	-5.8		
월세	20.1	39.5	22.9	42.5	2.7	3.0		
사글세	1.3	3.0	0.8	1.8	-0.5	-1.2		
무상	2.7	3.8	4.0	6.1	1.4	2.3		

< 그림 14 > 점유형태별 1인가구(2015)



다.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

단독주택(2,716천가구, 52.2%)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증가율은 다세대주택(98.5%)로 가장 높음

- 1인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2,716천가구(52.2%)로 가장 많고, 아파트 1,477천가구(28.4%), 다세대주택 467천가구(9.0%) 등임
- 전체가구에 비해 단독주택(16.9%p)과 주택이외거처(3.7%p)는 높고 아파트(19.7%p)와 연립주택(0.4%p)는 낮음
- 2010년에 비하여, 다세대주택의 증가율이 9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이외의 거처가 60.7%로 높음

< 표 38 >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2010, 2015)

(단위: 천가구, %, %p)

거처의종류	2010		2015		증감		증감율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계	17,339	4,142	19,112	5,203	1,772	1,061	10.2	25.6
단독주택	6,860	2,460	6,739	2,716	-121	257	-1.8	10.4
아파트	8,169	1,057	9,196	1,477	1,027	421	12.6	39.8
연립주택	502	83	427	96	-75	13	-15.0	16.1
다세대주택	1,242	235	1,710	467	468	232	37.7	98.5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12	69	327	63	115	-6	54.1	-8.8
주택이외의거처	354	239	712	384	358	145	101.2	60.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0	0.0		
단독주택	39.6	59.4	35.3	52.2	-4.3	-7.2		
아파트	47.1	25.5	48.1	28.4	1.0	2.9		
연립주택	2.9	2.0	2.2	1.8	-0.7	-0.2		
다세대주택	7.2	5.7	8.9	9.0	1.8	3.3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2	1.7	1.7	1.2	0.5	-0.5		
주택이외의거처	2.0	5.8	3.7	7.4	1.7	1.6		

< 그림 15 >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2015)



부록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2015년은 제 19차 조사
-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2015년은 제 11차 조사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 3(총조사 실시), 동법 제 17조 1항(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 10101호,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 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개정)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대상

-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조사항목 : 전수 12개, 표본 52개

- 표본 52개 중에서 현장조사는 49개, 행정자료 대체 3개

조사방법

-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 표본조사는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실시

현장조사 기간

- 준비조사 : 2015. 10. 22. ~ 10. 23.(2일간)
- 인터넷조사 : 2015. 10. 24. ~ 10. 31.(8일간)
- 본조사(방문면접조사) : 2015. 11. 1. ~ 11. 15.(15일간)

현장조사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현장조사 동원인력 : 총 50천명(공무원 6천명, 조사요원 44천명)

- 공무원 6천명 : 통계청 1,897명, 지자체 4,331명
- 조사요원 44천명
 - 총관리자 3,488명, 조사관리자 3,231명, 조사원 33,472명, 업무보조원 3,797명

소요예산 : 1,061억원

II.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비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 전수조사
 - 적용방법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 활용자료 : 13개 기관과 400여대학의 24종의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자료, 학적부 등
 - 자료처리 : 각종 행정자료의 연계 및 보완
 - 결과집계 및 공표 : 2016. 9월(완료)

- 표본조사
 - 적용방법 :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 조사대상 :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규모 : 전체 인구, 가구 및 거처의 약 20%
 - 표본추출 방법 : 층화계통추출 방식
 - 자료처리 : ICR 입력 및 내용검토를 통한 수정 및 보완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결과집계 및 공표
 - 인구,가구 및 주택의 기본 특성 : 2016. 12월
 - 여성·아동, 출산력, 주거실태 등 : 2017. 2월(예정)
 - 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등 : 2017. 4월(예정)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 추정으로 일부 자료에서 전수 집계 결과와 표본 집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I. 추정 모수 및 추정 방법

1. 추정 모수

- 추정모수는 전수조사 결과의 인구, 가구 및 주택을 모수 함
 - 인구 : 한국인과 외국인 등 2개로 분리하여 추정
 - 가구 : 일반가구+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 등 2개로 구분 추정
 - 주택 : 사람이사는 주택, 빈집 및 주택이외의거처 등 3개로 구분 추정

부문별 추정 모수

부 문	구분	추정모수
인 구	한국인	49,705,663명
	외국인	1,363,712명
가 구	일반가구+집단가구	19,127,494가구
	외국인가구	433,109가구
주 택	사람이거주하는주택	15,298,087호
	빈집	1,068,919호
	주택이외의거처	607,195호

2. 추정 주요 절차 및 방법

- 기준변수 선정 : 가중값 적용을 위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핵심변수 선정
 - 선정방법 : 변수별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분석, 상관분석 등
 - 선정변수
 - 인구 : 성별, 연령, 가구주관계
 - 가구 : 거처의종류, 가구원수, 전용면적, 가구주 성별
 - 주택 : 거처의종류, 주거용연면적
- 레이킹 조정 : 모집단의 주변분포에 맞게 반복적으로 추정값 조정
- 가중값 평가 :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 차이로 발생한 극단가중값 조정
 - 측정방법 : 가중값 분포가 평균에 비해 5배 이상인 경우
 - 조정방법 : 가중값을 $5 * \text{mean}$ 에 고정 후 가중값 재조정
- 가중값 정수화 : 이용자 편의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정수화
 - 방법 : 가중값을 정수와 소수로 분리하여 소수 크기에 따라 가중값에 1을 추가
 - 평가 : 모집단과 추정값 차이를 비교하여 편향을 평가
 - 내국인 : 0.2%, 외국인 3.4%, 내국인 가구 0.2%, 사는집 0.5% 등